

2010-04

통권 283호



#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2. 01 (月)



## 경제이슈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세 지속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 0.2%로 플러스 기록

## 경영노트

장수하는 가족기업의 비결

## 사회트렌드

하이누 공포  
보네이션

## 저널브리프

다보스 포럼의 7대 경제 키워드

## 洗心錄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세 지속

- 미국 컨퍼런스보드가 지난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55.9를 기록하며 지속적 상승세 유지
  - 소비자 신뢰지수 : 1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달 53.6보다 2.3p 상승하여 55.9를 기록하였으며 3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현재 상황지수 : 1월 현재 상황지수가 전달 20.2보다 4.8p 상승하여 25.0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상황지수의 빠른 개선이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 기대지수 : 향후 6개월에 대한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 75.9에서 76.5로 소폭 상승
  
- 미국 소비자기대지수 상승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고용 상황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 0.2%로 플러스 기록

-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0.2%로 플러스 성장 기록
  - 분기별 성장률 : 2009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4.2%, -2.2%로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는 0.9%, 6.0% 플러스 성장
  - 정부기여도 확대 : 성장기여도에서 정부소비가 0.8%p 증가하였고, 정부 공공부문의 투자가 증가된 건설투자도 0.6%p 높게 나타남
  -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 민간소비는 0.1%p로 기여도가 미미했고, 설비투자도 -0.8%p로 마이너스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입 규모 감소 : 수출·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9.0% 감소하였으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커 경상수지는 흑자 기록
  
- 한편, 2009년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로 낮아졌으나, 2010년에는 내외수 경기 회복으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장수하는 가족기업의 비결<sup>1)</sup>

- (정의) 가족기업이란 지분을 소유한 가족이 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 및 회장, CEO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함
  - 해외에서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수준의 작은 규모의 사업체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움
  - 하지만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의 1/3, 프랑스와 독일 250대 기업의 40%가 가족기업의 범주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에서도 흔한 형태임
- 창업주 이후 3대째까지 살아남는 가족기업은 30%에 불과하나 존속하는 가족기업은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해 더 우수한 경영 성과를 보임
  - 2008년 미국과 서유럽 가족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중 평균은 23%로 다른 형태의 기업(39%)보다 안정적인 재무구조에서 사업을 영위함
  - 이 가운데서도 MSCI World 지수의 미국과 서유럽 가족 기업의 1997년~2009년 TRS<sup>2)</sup>의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기업보다 3%p 높은 6%임
- 장수하는 가족 기업은 경영 성과와 소유권 강화를 목표로 가족 관계, 지배 구조, 경영 관리, 자산 관리, 자선 사업의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음

< 장수하는 가족기업의 다섯 가지 비결 >

	내 용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영 의사 결정을 위한 가족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을 수립하고 준수하며, 기업 경영과 관련된 구성원의 조화를 유지</li> <li>•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자부심을 전파하여 의미 있는 기업 소유를 지속</li> </ul>
지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 매도나 배분 등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나 지주 회사가 이를 매수하는 등 지분 관리에 대한 규칙을 수립</li> </ul>
경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구성원이 기업이 속한 산업과 경영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력을 쌓고, 직접 이사회의 멤버로 속하여 강력한 경영진을 구성</li> <li>• 가족의 자산과 기업의 통제권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 관점의 경영 성과 창출에 노력</li> </ul>
자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하는 한편, 재무적 이익을 각 구성원에게 배분</li> </ul>
자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선 사업을 통하여 가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가치 있는 일을 제공</li> </ul>

1) 본 자료는 2010. 1. McKinsey Quarterly ‘The five attributes of enduring family businesses’를 요약 정리함  
 2) Total Return to Shareholders, 주가 상승률과 배당률을 합산하여 산출

□ 하이누 공포<sup>3)</sup>

- 중국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하이누(孩奴, 자식 노예)’란 신조어가 최근 등장
  - 인구 억제를 위해 농촌을 제외한 도시에서 ‘한 자녀 낳기’가 의무화된 중국에서도 이제 자식 하나 키우기조차 버거운 시대로 접어든 것
-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바링허우(八零後 : 1980년대생)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자녀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음
  - 이들 세대는 자식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부부만 단 둘이 사는 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을 선호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20년 전 40~50위안이던 베이징의 출산 비용은 4,000~5,000위안으로 100배 가량 늘어남
- 한 포털사이트의 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비율이 63%에 달함
  - 인구전문가들은 “가임여성의 출산인구가 1.5명 미만(농민은 2명 출산 가능)인 상태가 지속되면 30년마다 인구의 25%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

□ 보네이션<sup>4)</sup>

- 연예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목소리 출연을 하는 일명, 목소리 기부, 보네이션(voice+ donation)이 빠르게 확산
  - 작년 12월 초 한류스타 배용준이 UN환경계획의 ‘기후변화 관심 촉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목소리를 기부한 게 대표적
  - 300여 명에 불과했던 캠페인 서명자는 배용준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실린 4분 35초짜리 영상이 공개되자, 2주일 만에 7,000명으로 늘어남
  - 시청자들의 ARS 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MBC 드라마넷 ‘해바라기’, 홀트아동복지회 홍보 동영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라디오 용 광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많은 연예인들이 목소리를 기부

---

3) “출산·양육비 무서워 ... 중국인들 하이누 공포증”(중앙, 2010.1.26) 참조

4) “스타들 보네이션 열기 뜨겁다”(조선, 2010.1.26) 참조

□ 다보스 포럼의 7대 경제 키워드<sup>5)</sup>

- 세계 각국의 정·관계, 재계 등 인사들이 모여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이 2010년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음
  - 올해 다보스 포럼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rethink, redesign, rebuild)”를 주제로 선정
  - 이 의제에 따라 성장 모멘텀 및 금융규제 전쟁, 출구전략 등 다양한 경제 이슈들이 관심사로 부상

< 다보스 포럼의 7대 경제 키워드 >

키워드	내 용
아시아 모멘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 이후 西에서 東으로 힘의 이동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는 시도가 지속됨</li> <li>-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배제하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li> </ul>
금융규제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가운데 월가 금융사들이 과도한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규제를 강화하려는 각국 정부와 금융업계 간의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li> <li>-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은행들의 무책임한 투자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li> </ul>
출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리인하·통화환수·경기부양책 축소 등 출구전략 시행 시점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li> <li>- 경기 과열은 막으면서도 경기에 미치는 과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출구전략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li> </ul>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고용 성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li> </ul>
뉴노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은행 개혁을 위한 은행 규제책 등 새로운 표준(New Normal)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li> <li>- 위기 발생 이전의 표준은 신자유적인 경제정책 아래 자유무역과 규제완화였음</li> </ul>
G20, 新글로벌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흥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G7을 대신하여 G20가 21세기를 이끌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로 등장하였음</li> </ul>
저탄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기후변화 협상 및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부 재원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임</li> </ul>

5) “글로벌 리더들이 말하는 7대 경제 키워드”(매일경제, 2010.1.27) 참조

□ 스투데일 패러독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리는 포로수용소에서 최고 위급 미국 군인인 짐 스투데일이란 장군이 있었다. 그는 1965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8년간의 포로생활에서 20회 이상에 걸친 고문을 받아 언제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스투데일 장군에게 살아남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단순한 낙관론자는 포로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낙관론자는 내년에는 수용소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후년이 되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거 없이 낙관만 하여 내년에도 후년에도 나갈 수 없게 되면 몇 번이나 절망을 한 끝에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다.

스투데일 장군은 최후에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데서 낙관론자와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낙관론자와 다른 점은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현재 처해진 상황을 직시하였다고 한다. 현실을 직시할 경우, 내년에 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해 대처하게 되는 것이다. 스투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은 성공의 확신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만 엄격한 현실과 대면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나오게 되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든 어려운 상황 속에 결과를 내는 사람이란 스투데일 패러독스를 실천하는 사람일 것이다. 낙관론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할 때에 비즈니스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君子는 求諸己요 小人은 求諸人이라.”(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 논어 -